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josephnam2011@gmail.com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이틀린티 주보

안 그래픽스 인쇄, 사진,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종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04-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배용자 루시아 보험 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미소 치과 남상우 시론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스마일원치과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운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오민환 파비아노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정토니 안토니오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스완니 교정 치과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만 천 흥 명품 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만 천 흥 명품 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VINEYARD REALTY "부동산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 김 678-361-6230 GMC용자 켈리 김 770-634-5646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만 천 흥 명품 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주보 광고 문의 kmccga.bulletin@gmail.com	 GIFTS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목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구세주>, 엘 그레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루카 12,49-50)

연중 제 20주일

- 일 당 송** 시편 84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 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 제 1 독서** 예레미아서 38, 4-6. 8-10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 화 답 송** 시편 40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제 2 독서** 히브리서 12, 1-4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복 음** 루카 12, 49-53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영상체송** 시편 130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을 지르러 왔다.
 그 ()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식구가 서로 갈라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았 기에 성체 앞에 앉아 이 말씀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느 날 공원에 놀러갔다가 바라본 잔잔하고 평화로운 저수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멀리서 본 것처럼 평화롭지도 깨끗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리고 위에서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지니 바닥에 깔려 있던 이끼들이 들고 올라와서 금방 물을 흐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수지의 물이 깨끗하고 생명수가 되려면 분명히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끼들 하나하나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수지를 제 마음에 비추어 보면서,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이끼들을 떠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며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삶속에서 주님께서서는 나의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에 돌멩이를 휘두르시면서 올라오는 이끼들을 당신께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끼들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회피하면서 상대와의 충돌 보다는 그냥 물러나거나 침묵하는 쪽을 택하는 비겁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엄마 태중에 있는 태아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지 못하고, 9개월 된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그런 법안에 아무 저항없이 따라 가는 것에, 주님은 돌멩이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이것에 대해서 엄마의 생명과 인권을 우선적으로 여긴다고 말할 때, 침묵하며 거짓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주님은 돌멩이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남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주는 것은 힘들고 관계가 끊길 수도 있기에 그냥 묵인하고 가는 길에 주님은 돌멩이를 던지시면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성 찰 |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이웃과 부딪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며,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성모 마리아를 왜 공경할까?

가톨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가톨릭은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구원의 협조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공경하는 것이지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행위인 흠숭은 하느님께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성인께는 공경을 드린다고 표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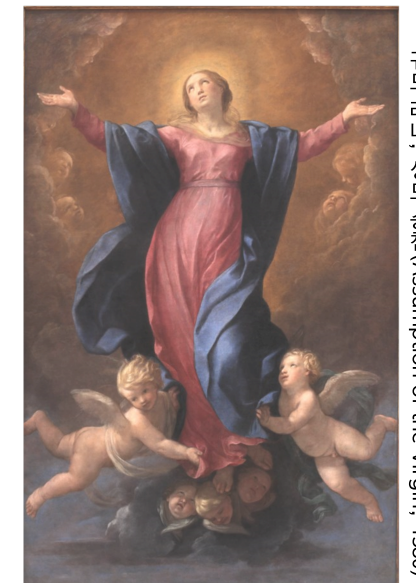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말을 듣는다.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낳아 기르셨다. 성모님은 평생 동안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겪으셨고,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도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루가 2,35) 고통을 겪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다. 이와 같이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모신다.”(교회 헌장 53항)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성모님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 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하고 말씀을 남기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성모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기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셨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공경해 오고 있다.

성모님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성자)의 어머니시므로 교회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한다. 초대 교회부터 교회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해왔다. 교회는 성모님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기 위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평생 동정이셨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은총으로 인해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셨다(승천)고 믿는다. 이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낸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근대 레그, 정어 승천(Assumption of the Virgin, 1580)

감사송 <영광스러운 마리아의 승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돌 < 루카 12,49-53 >
 배영길 베드로 신부

내 손에 든
 이 돌이
 어찌 쓰일까?

누구를
 치는 돌로.

아니면,
 성전의
 머릿돌로.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모습



매월 첫째주 일요일 소성당 (피검사, 당뇨검사 가능)



Bridge Mass



8월 7일 일요일 Bridge Mass
매월 첫째주 일요일 4시
소성당, Young Adult(청년, 기혼자) 대상



전례분과 회의



복사단 PTA회의



8월 6일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8월 6일 토요일 특전미사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5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내리기 위해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이다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짓눌려야 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란 곧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특히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흘리실 ‘피’가 곧 ‘불’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불타게 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와 맺어야 하는 계약은 ‘피’로 맺는 계약이기도 하면서(마태 26,28 참조) ‘성령’으로 맺는 계약이기도 합니다(2코린 3,6 참조). 이렇듯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1요한 5,8 참조).

그런데 주님의 성령은 어떤 이에게는 은총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유황 불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 불은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였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 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창세 19,24 참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주실 성령의 불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기에 합당하지 않게 된 아담과 하와를 불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룹들이 들고 있는 그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은 “불에 타는 산” (신명 9,15)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령의 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이 사실 거룩한 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물이 봉헌되어야 하는데(1역대 21,26 참조) 그 제물이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엘리아가 소를 잡아 제단에 놓고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소를 살랐듯이 누구든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려 계속 타고 있을 재료를 잃게 됩니다(1열왕 18,38 참조).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1테살 5,19)라고 하는데, 그 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뜻을 제물로 봉헌하지 못하여 주님의 뜻인 이웃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루카 12,57-59 참조).

<catholic.or.kr>

마음 속의 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이 타오릅니다. 세례를 받던 그 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날. 그분의 빛을 받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이...
지금도 우리 맘속에서 타오르고 있나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49)

<임의준 신부/가톨릭 신문>

환영합니다



김성현 라파엘 보좌 신부님

- 2009년 예수회 한국관구 입회
- 2018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2019년 Loyola School of Theology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교) 졸업
- 2019년 사제 서품
- 2019년 ~2020년 의정부 교구 금촌 성당, 협력 사제
- 2020년 ~2022년 이웃살이(예수회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부센터장

